

# 지구촌 양계뉴스

## ..... 한국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실시

농림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AI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국경검역 강화, 야생조류에 대한 분변검사 등을 통해 AI 유입경로를 차단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 농림부

## ..... 미국

###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공급 지연

올해 대량의 인플루엔자 백신이 제공될 예정으로 접종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급하기 위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주 보건부 장관이 발표했다. 이런 지연으로 인해 몇몇 병원에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약 건을 취소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 New14.com

### USDA, 2007년 농업법을 향한 중점과제 발표

미국의 USDA는 지난 9월 13일 '장래의 미국

농업 발전을 향한 기반강화' 라는 제목으로 미국농업정책에 관한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USDA는 차기 농업법 작성단계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동법에 미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지금까지 4회에 걸쳐 특정 과제에 대해 동성의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일련의 분석 자료의 5회째이고 최종판이 되는 것으로 금후 동법 개정을 향한 미 국민에 의한 의론 시에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이 분석 자료에서는 ① 국제무역, ② 조사 연구, ③ 해충 질병으로부터의 농업 보호, ④ 차세대 농업자 육성등 금후의 미국농업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예측되는 요인에 관한 포괄적 분석결과가 기술되어 있다.

농무장관은 이번의 공표에 즈음하여 "차기 농업법을 의론하는 데서 미국농업의 장래적 발전을 향한 최선책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해 동 자료는 미국농업의 경쟁력 강화, 차세대 농업자애의 농장 이양촉진 등 금후 더욱 경쟁이 가속화되는 국내외 시장경쟁에, 특히 차세대 농업자들이 대응하기 위한 목표 및 과제에 중점을 둔 것이다"라고 말했다.

USDA에서는 이들 분석 자료는 특정 농업정책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농업정책의 현

상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한 것으로 차기 농업 법 입안을 향한 금후 미 국민의 의론에서 과제 및 선택을 표시한 것이라고 했다.

- AW

## 농무부, 사업자에 의한 AI 자주검사 추진

USDA는 지난 9월 22일 연방정부, 주정부 및 관련업체가 공동으로 가금의 질병이 상업생산용 가금 사육시설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전국가금개선사업(NPIP)을 확충하는 잠정규칙을 공표했다.

이 잠정규칙에 따라 USDA는 NPIP에 참가한 상업생산용 가금 사육시설에 대해 H5형 및 H7형의 LPAI의 청정화에 필요한 경비를 100% 보상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만 자주적 서베일런스를 하지 않은 사육시설에 대해서는 청정화에 필요한 경비의 25%만 보상한다.

지금까지 H5 및 H7형의 발생 사례에 대한 보상은 주정부에 의해 행해지고 있고 그 보상 비율도 제각각이었다.

### 1. 고병원성으로의 변이 미연방지와 국제기준 준수가 목적

LPAI는 사람의 건강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나 H5형 및 H7형에 있어서는 HPAI로 변이 될 가능성이 있어 USDA는 LPAI의 청정화정책을 진행해 왔다.

USDA 동식물검역국(APHIS)의 론 디헤이븐 국장은 “이 사업 확충은 AI를 위시한 가금질병에 대한 미국의 방어책을 강화하는 것인 동시에

우리들이 장기에 걸쳐 적극적으로 관여해온 국제적 가축질병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준수해 가는 데에도 기여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국제수역기준에는 현재 모든 국가에 대해 H5형과 H7형의 발생보고를 구하고 있으나 USDA는 이번 사업 확충으로 사업자의 자주검사나 양성사례 보고에 메리트가 생겨 보다 확실하게 이 기준에 따른 대응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H5형 및 H7형 AI의 모든 확인사례에 있어서 투명성의 확보로 미국의 생산자에 대한 잠재적 무역상의 불이익이 최소화된다고 하고 있다.

### 2. 사업자에 의한 자주검사의 계속실시가 보상의 요건

이 사업에 참가해 H5형 및 H7형의 LPAI가 발생한 경우 100%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주정부 및 가금 사육시설들이 USDA가 책정한 규정을 채울 필요가 있다. 다음이 기본적인 3개 요건이다.

① 주정부가 모든 가금에 대해 확정 진단에 맞는 서베일런스 계획을 세울 것. 이 서베일런스는 USDA/APHIS에 의해 승인된 계획에 따라 주 행정조직에 의해 실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② 주정부가 발생시 대책과 만연 방지계획을 작성하고 USDA/APHIS의 승인을 받을 것. 이 계획은 H5형 및 H7형의 LPAI가 발생한 경우에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것이다.

③ 종계 및 상업생산용 채란계에 대해서는 각 사업자는 자주적 서베일런스를 계속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상업생산용 육용계 및



육용 칠면조에 있어서는 자주적으로 하는 군 배이스에서의 검사 또는 식조처리시의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 3. 상업생산용 가금을 사업대상에 추가

NPIP는 가금 군이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목적으로 1930년대에 시작한 사업이지만 지금까지 AI에 대해서는 종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상업생산용 가금은 사업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의 개정으로 NPIP의 대상에 상업생산용 가금, 구체적으로는 채란계, 식육용 닭 및 식육용 칠면조가 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잠정규칙은 2006년 9월 26일 관보로 게재되고 동일 부로 발효되지만 이 잠정규칙에 대한 의견의 제출도 인정하고 있고 이 기한은 2006년 11월 27일로 되어 있다.

- AW

라키현을 중심으로 한 작년의 발생 시 도입했다. 프로그램의 적용농장에서 바이러스가 외부로 새지 않았기 때문에 방역지침에 포함시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대책의 하나로 정식으로 자리 매김을 한다.

그러나 LP 타입도 HP 타입으로 변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생농장의 닭을 살처분한다는 원칙을 바꾸지 않고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경우를 예외조치로 하고 있다.

만일 농장에 바이러스가 남아 있어도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엄격한 사양위생관리를 하는 것이 조건이다. 구체적 내용은 농수성이 금후 정리한다.

닭을 살처분하는 것보다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쪽이 경영을 재건하기 쉬운 것인지는 계란이나 식조의 출하가 원활히 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프로그램을 조기에 경영재건으로 활용하려면 소비자를 비롯한 식조처리장이나 유통업자를 포함한 업계 전체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 JANP

## 일본 AI 방역지침 수정

농수성은 HPAI의 방역지침의 수정안을 마련해 11월에 결정한다. LP 타입 경우의 만연방지 대책으로서 닭에서 항체가 나타나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농장에서는 곧 살처분하지 않아도 마무리 짓는 방식을 포함시킨다.

이 방식은 '농장감시프로그램'이라고 불린다. 감염경험이 있는 농장에서 닭이 완치되었으면 계란이나 식조의 출하를 계속하도록 한다. 이바

인정농업자, 채란계 호수의 38.3%, 블로일러는 30.5%

농림수산성은 농업 종사자의 육성 확보를 위해 인정농업자 제도를 설정하고 각종 시책의 집중화·중점화를 진행하고 있다.

2006년 4월 시점의 인정농업자수는 채란계는 전년을 80호 상회한 1,382호로 2006년 2월 1일 현재의 전 사육호수의 38.3%, 브로일러는 같이 41호 상회한 792호로 30.5%를 차지했다.

인정농업자의 사육수수는 채란계가 9,945만 3,352수로 2006년 2월 1일 현재의 전 사육수수의 56.2%, 브로일러가 3,636만7,392수로 동 35.2%를 차지했다.

기타 축종에서의 인정농업자 비율은 낙농이 58.6%, 육용우 번식이 15.1%, 육전용종비육이 34.3%, 교잡비육이 29.5%, 유용종비육이 25.9%, 비육돈이 41.2%, 자돈생산용 모돈이 40.6%를 차지했다.

- 케이메이신문

### 이용 특수섬유 개발

섬유공업품의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시키보(오사카시)는 HPAI 바이러스가 부착되면 감염력이 거의 없는 섬유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 특수섬유는 바이러스의 단백질에 작용해 불활성화 시키며 유기계 항바이러스제를 섬유와 결합시킨다. 양계장의 작업복이나 마스크 등에 응용된다.

동물위생연구소와의 실험에서는 이 섬유를 10분간 바이러스에 노출시킨 후 부착된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시험한 바 거의 제로였다. 섬유를 50회 세탁한 후에도 효과가 떨어지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

섬유 재질로 효과가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폴텍트' 라는 상품명으로 내년 봄쯤부터 제품이 유통될 예정이다.

양계장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에서 쓰이는 마스크와 위생복, 학생복이나 파자마, 침구 등

일반 수요에도 예상된다. 가격은 통상의 2 할 정도 증가된다고 한다.

- 일본농업신문

## ..... U N 전세계적인 AI조기경보 체제 발족

UN 세계 식량기구는 AI의 확산을 모니터링 하고 각국으로 전문가를 파견하여 바이러스를 진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Global crisis center를 개설했다.

이 질병관리센터는 각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AI의 발생 등을 조사하고, 전세계 어느 나라든지 48시간 안에 훈련된 전문적인 수의사를 파견한다는 계획이다.

- 로이터

## ..... 프랑스 Sanofi사의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예방효과 제공

프랑스 제약회사인 Sanofi-Aventis사는 자체 실험용 H5N1 AI 백신 테스트 결과 최초 생각보다 많은 바이러스 strains에 대한 예방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고무적인 결과는 가장 최근의 AI H5N1형 strain에 대한 중화항체 형성을 유도함으로써 광범위한 예방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백신효과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이미 검사를 마친 140만명분의 백신



을 구매할 것이며, 유럽과 미국에서도 구입 계약을 한 상태라고 한다.

- 로이터

### ..... 러시아 2006년 9월까지 육류 생산량 11.7% 증가

2006년 9월까지 러시아의 육류생산량(머리, 내장 등 포함)이 작년 동기대비 11.7% 증가한 150만톤을 기록했다. 9월만 본다면 작년대비 11.5% 증가했고, 전월과 비교하면 1.5% 증가했다고 러시아 통계청이 발표했다.

- AK&M

### ..... 베트남 성공적인 AI 방역 정책

베트남은 2003년 첫 사람 AI 발생했으며, 2004년 첫 가금에서의 AI 발병으로 6천6백만 수의 가금살처분과 93명의 사람 발생이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2005년 11월 이후로 새로운 사람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질병의 전파도 지방으로 국한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 위생 기관들은 베트남의 성공이 다른 나라에서도 재현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 promedmail.com

### ..... 이스라엘 털 없는 '누드 닭' 인터넷 화제



털 없는 닭이 해외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붉은 피부를 드러낸 닭의 모습은 그야말로 '누드' 상태이다.

사진 속 닭의 외관은 믿기 어렵지만 합성된 것이 아니다. 수년 전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 유전학자들이 개량해낸 것이다. 엽기적 모습의 닭은 개량해낸 그럴듯한 목적도 있다. 닭에 털이 없으면 더운 지방에서도 에어컨을 가동하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기를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판단. 또 칼로리도 낮고 빨리 자라며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도 털 없는 닭의 장점이라고 연구팀은 주장했다.

게다가 유전자 조작의 방법이 아니라, 목에 털이 없는 베어넥 종과 일반 닭을 교배한 결과라는 게 연구팀의 자랑이었다.

외모가 너무나 개성적이어서 거부감을 일으켰던 이 누드 닭은 2002년 뉴욕타임스 올해의 발명품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지만, 그 후 상업화 성공 등의 희소식이 없다. 

- 팝뉴스